

김영훈 장관, 국제노동기구(ILO) 사무총장과 만나 “사람중심 인공지능(AI) 전환” 위한 협력 제안

- 인공지능(AI) 전환과 국제노동기준 논의 속 한국 역할 확대 방안 논의-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5월 21일(목) 질베르 응보(Gilbert Hounbo) 국제노동기구(ILO) 사무총장을 만나 “사람을 위한 AI 전환”(Human-centered AI transition) 방향을 함께 모색하고, 한-ILO간 전략적 협력 강화 및 ILO 내 한국의 역할 확대 방안에 대해 폭넓게 논의했다.

이번 면담은 사무총장이 2022년 10월 취임한 이후 처음으로 고용노동부를 방문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AI와 디지털 전환이라는 새로운 시대적 변화 속에서 한국과 ILO간 협력을 한 단계 발전시키는 의미 있는 계기가 되었다.

양측은 이날 면담에서 △사람 중심 AI 정책 추진방향 △노동존중 사회 실현을 위한 한국 정부의 정책방향 △한-ILO 협력사업 등 양측간 파트너십 강화 △ILO내 한국 역할 확대 및 위상 강화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였다.

김영훈 장관은 “한국 정부는 디지털 혁신 역량과 제조·ICT 기반을 바탕으로 산업전환과 기술혁신을 추진해왔다”라고 설명하며, “이재명 정부는 ‘모든 일하는 사람의 노동권 보장’이라는 국정과제 아래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노동시장 포용성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한국은 이러한 역량과 경험을 토대로 책임있는 AI 활용과 노동시장 전환에 관한 국제적 논의에도 적극 기여해 나가고자 한다”라며, “한국과 ILO가 긴밀히 협력한다면 기술혁신과 노동권 보호가 조화를 이루는 사람 중심의 모범적

AI 전환 모델을 국제사회에 함께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덧붙였다.

사무총장은 이날 오후에 열린 글로벌 AI 허브 비전 선포식에도 참석한 경험을 전하며 한국의 글로벌 AI 이니셔티브 제안에 사의를 표하고, AI 시대 양질의 일자리와 사람 중심 전환을 위한 국제협력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김영훈 장관은 한국이 지원하고 여러 국제기구가 함께하는 글로벌 AI 허브가 성공적으로 운영되기 위해 ILO의 적극적인 관심을 요청했다.

한편, 사무총장은 5월 22일(금)까지 방한 일정을 이어가며, 대통령 면담, 노동계 및 경영계 대표 면담, 서울고용센터 방문 일정을 이어갈 예정이다. 특히, 22일에는 서울고용센터를 방문하여 AI를 활용한 한국 고용노동 행정 혁신 사례를 살펴보고 AI 면접 등 디지털 기반 고용서비스도 직접 체험할 계획이다. 사무총장은 “AI를 활용한 한국의 고용노동 행정 모델은 향후 개발도상국에도 적용가능한 우수한 정책 사례”라며 “한국의 역량과 경험이 국제사회에도 의미 있는 참고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정책을 공유하고 전파해 주기를 바란다”라고 기대를 표했다.

붙임. 장관님 인사 말씀

담당 부서	국제협력관 국제협력담당관실	책임자	과 장	이강연 (044-202-7129)
		담당자	사무관	정혜진 (044-202-7133)



< 인사 말씀 >

- 질베르 응보 사무총장님,
바쁘신 일정에도 대한민국을 방문해 주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이렇게 직접 만나 뵙게 되어 뜻깊게 생각합니다.
- 저는 과거 한국 노동계를 대표하는 일원으로
ILO 총회에 참석한 경험이 있습니다.
 - 당시 ILO가 노사정 삼자주의를 바탕으로
사람 중심의 노동 가치를 실현해 나가는 모습을
가까이에서 지켜보며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 오늘은 대한민국 고용노동부 장관으로서
사무총장님의 방한을 맞이하게 되어
더욱 뜻깊게 생각합니다.
- 현재 우리는 AI와 디지털 전환이라는 거대한
변화의 한가운데 서 있습니다.
 - 역사적으로 기술혁신은 새로운 기회를 만들었지만,
동시에 노동시장 구조와 일자리에도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 이러한 전환의 시대일수록
기술 발전의 방향이 사람을 향해야 하며,
노동이 배제되지 않는 "사람 중심의 AI 전환"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그리고, 전 세계 노동자의 권리 보호와
국제노동기준의 발전을 이끄는 ILO의 역할은
AI시대에 그 중요성을 더해가고 있습니다.
- 한국은 AI 전환과 국제사회 변화 속에서
책임 있는 국가의 역할을 다하고자 합니다.
- 고용노동 분야 국제협력을 지속 확대하고,
ILO와 함께 글로벌 노동의제 해결에
적극 기여해 나갈 것입니다.
- 특히, 이번 사무총장님의 방한 계기가 된
"글로벌 AI 허브" 비전을 바탕으로
- 기술혁신과 노동권 보호가 조화를 이루는 사람
중심의 AI 전환 모델을
ILO와 함께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 한국 고용노동부는
국민들에게 제공되는 고용노동행정의 AX 전환과
부처 내부 업무처리의 AX 전환을
다양한 분야에서 시도하고 선도하려 애쓰고 있습니다.
- 우리의 실패, 실수, 그리고 성공의 경험은
여러 이웃 국가들의 큰 자산이 될 것입니다.
- 글로벌 AI 허브가 역동적인 학습과 성장의
플랫폼이 되도록 ILO와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나라는
ILO가 확산시켜 온 우리 모두의 보편적 핵심 가치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우리 정부의 고용노동행정의 비전입니다.

- 노동은 상품이 아니라
존중받아야 할 권리와 가치라는
ILO 필라델피아 선언의 정신이
변함없이 단단한 바탕을 이루고 있습니다.
- 한국은 노동권 존중의 가치가
국제사회 전반에 더욱 확산될 수 있도록
국제노동기준과 다양한 글로벌 노동의제 논의에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하겠습니다.

□ 다시 한번 대한민국을 방문해 주신
사무총장님께 감사드리며,
오늘 귀중한 말씀과 통찰을
함께 나눌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